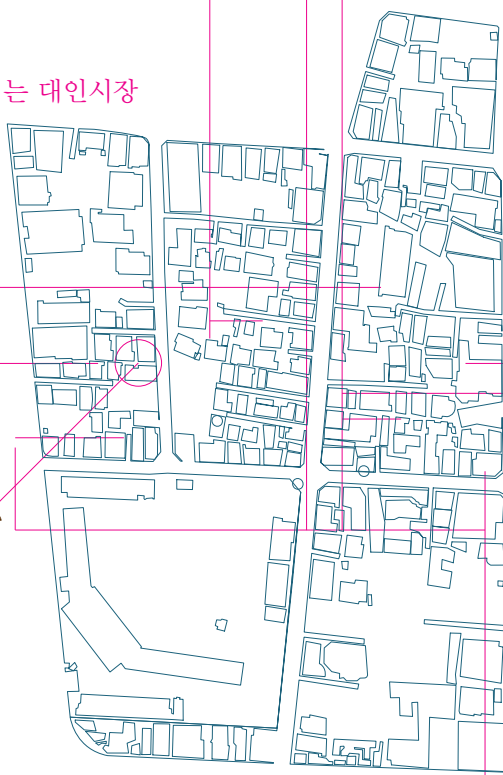


문화가 흐르는 예술의 거리, 예술이 넘치는 대인시장

2013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

무진마루

가이드 북



숨은 보석들을 잔뜩 입에 문 채 잠자코 있는 두 공간의 매력

대인시장은 그 자체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입니다. 1959년 공설시장으로 출발하여 90년대 중반에는 300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서며 지역 대표의 재래시장으로 승승장구하였고, 이후 터미널이전으로 침체의 아픔을 겪는 등 그곳 상인들과 흥망성쇠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장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예술인들이 모여 들면서 대인시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 대표의 테마거리인 예술의 거리 역시 구도심과 함께 발전과 진통을 모두 겪어왔습니다. 한국 근현대의 중요한 획을 그은 지역 미술인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도심공동화와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이후에도, 화랑과 갤러리·화방 등의 상인들이 ‘예술의 거리’라는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소소한 호기심을 품은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

은 숨은 보석들을 잔뜩 입에 문 채 잠자코 있는 두 공간의 매력을 발산시켜보자는 취지로 가이드북을 기획하였습니다.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찾는 분들이 친구의 다락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호기심 어린 결눈질을 해볼 요량이라면, 이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한 편 이 가이드북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와 사진촬영에 기꺼이 응해주신 상인·작가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 모두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에 힘쓸 것입니다.

2014년 2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이 연

광주문화재단 :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지닌 상상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문화의 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의 공적 책임성’과 ‘문화예술의 다양성’, ‘문화도시의 지속’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정책 다원화를 통한 창조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 그리고 문화도시 가치 확산으로 시민들의 문화자생력을 키운다는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문화공간 운영, 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국제문화교류, 창의적문화도시환경 조성, 문화복지 서비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축제의 전국화 및 세계화 등을 과제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갑니다.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 사업

그 중에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문화와 예술의 거점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예술 창작의 거점으로 개척하고 예술가 입주정책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광주문화재단의 활성화 프로젝트가 이어져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가들의 입주는 낯설고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지만, 차츰 투박한 전통시장에 예술작품이 늘어나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

지면서, 어느덧 ‘대인예술시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술의 거리 역시 고급스러운 갤러리와 화랑들로 일반인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으나, 상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들의 벽을 허물면서 이젠 거리의 포용력은 한 층 넓어졌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예술의 거리, 예술이 넘치는 대인시장 「무들마루」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크고 작은 문화 행사와 체험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점차 주민과 작가들만의 공간이 아닌 광주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상승에너지를 주고받기 위해, 2013년에는 두 공간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무들마루’라는 명칭은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두 공간을 시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무들마루”는 광주의 옛 지명이자 무등산의 별칭 중 하나인 ‘무들’과 ‘마루’가 어우러진 우리말로,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이 뛰노는 드넓은 문화예술촌”을 의미합니다.

예술의 거리

P	
10	광주 예술의 과거-현재-미래, 시간 여행을 도와줄 갤러리들
14	따뜻한 흙 기운이 가득한 힐링의 집 무안요
16	한 땀 한 땀, 수려한 자태와 낭만을 그려내는 규방공예 수려재
17	광주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광주 아트 샵
18	오래 묵을수록 깊은 빛을 내는 가족공예 숲 속의 가족공방
19	직접 옷 만드는 옷가게 김여사네
20	핸드 메이드 가게 물랑물랑
21	배움과 나눔의 소중한 실천 들꽃영토
22	낡은 집의 색다른 변신 스톤헨지Stonehenge
23	예술의 거리의 화백 3인을 기리는 아트게시판 -천경자, 배동신, 양수아
26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28	사랑하는 이와 앓아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러브벤치
30	골목에 매료되게 하는 벽화들
31	‘키스’해링을 찾아라
32	사진 찍을 땐 다함께 치~즈 Cheese
33	우울한 것들은 스트르 녹여버리고 화사함으로 기분 up 할 수 있는 녹:다
34	나만의 은공예품을 만나고 싶다면 은만들기
35	세계 수공예품 전문점 에스닉
36	나이 많은 물건들의 집합소 신신 예술의 집
37	질 좋은 한지와 소천붓을 만날 수 있는 전주 필방
38	건강에 좋은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청산 현방
39	예술인들을 위해 좋은 재료를 공급해주는 화방들
40	깔끔한 액자가게 미팜
41	동화나라에 온 듯한 분위기의 카페와 핸드메이드 공방 풀하우스
42	예술거리의 유일한 분식집, 숨은 맛집 신신분식
43	엄마가 끓여주는 생선조림의 맛 기차집
44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정식집 토방
45	인간 냄새 폴폴 들리는 음악카페 사운드 오브 뮤직

대인시장

P	
48	대인 시장의 시작, 대림상가 길
49	대인예술 야시장
50	볼거리 가득한 만물예술마차
51	갤러리 다다
52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대인
53	상상력을 빚어내는 예술 공장
54	단 한 평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창작에너지 한 평 갤러리
55	문화관광시장 카페
56	다원식문화공간 이화점
57	대인예술시장 내 작은 극장 항꾸네
58	광주인권운동센터/인권영화제
59	대인시장 속 예술가들의 작업실
60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플랫폼 미테 우그로 자자
62	하늘과 소나무
62	시장 안의 대숲
63	전설이 있는 무화골
63	맛있는 산수화
64	전현숙, 꽃들이 춤을 추어라
64	최양선, 이상한 문
65	활력을 나눠주는 파일 리어카
65	움직이는 작은 도서관 책수레
66	시장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표시등
66	슈퍼주니어 간판
67	그래피티 로 만나는 자랑스런 운동선수들
67	예술의 향기가 넘실대는 골목
68	시장의 푸짐한 인심 한 그릇, 순대국밥 골목
69	30년 넘게 당당히 시장을 지켜온 함평 닭집
70	행복을 나누는 천원식당 해 뜨는 집
71	돼지고기 전문 진이네 식육식당
72	정말 맛있는 치킨 덩킨앤멍집
73	대패 삼겹살으로 대박난 칠우 불고기
74	후루룩 장터국수
75	나눔을 실천하는 장짱
76	헌 옷 주면 새 옷 되는 리폼가게 물가의 나무
77	아담하고 예쁜 카페 티하우스
78	반짝반짝 빛나는 은누리 금속공방

예술의거리 입구

광주중앙초등학교

예술의거리 입구

예술의 거리

예술의거리

사운드 오브 뮤직(45P)

수려재(16P)

광주아트샵(17P)

녹;다(33P)

무안요(14P)

토방(44P)

미림화방(39P)

미팜(38P)

신신분식(42P)

무등갤러리(12P)

들꽃영토(21P)

원갤러리(13P)

예술길

풀하우스(41P)

숲속의 가족공방(18P)

청산현방(38P)

전주필방(37P)

기차집(43P)

자리아트갤러리(11P)

신신예술의 집(36P)

치즈(32P)

광주동부경찰서

에스닉(35P)

은만들기(34P)

문화예술공간

상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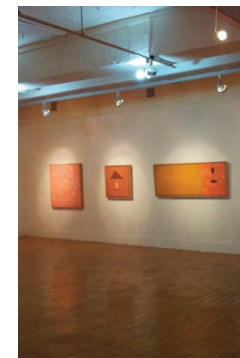
광주 예술의 과거-현재-미래, 시간 여행을 도와줄 갤러리들
활을 쓰던 자리(궁동)에서 전국 최초의 특화거리, 광주 문화 예술의 산실
예술의 거리 중심축을 담당하는 갤러리들을 둘러보며 광주 예술의 아름다움에 심취해보자.



자리아트갤러리

옛 궁동갤러리 자리로 본래 문화·예술의 자리터 라는 뜻을 지닌 갤러리이다. 조각가 최만길씨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아 2006년 8월 24일 문을 열었고, 작가의 입장에서 어려운 창작여건에 처해있는 예술인들과 갤러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 개관 취지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 미술의 동향과 빠른 속도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작가들의 관점을 이끌어내고 각각의 삶의 철학을 예술 속에 발굴하여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열고 있다. 또한 부산, 서울 등 국내 타지역 작가들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전을 통해 광주의 작가와 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곳이다.



T. 062-225-4003 A. 광주 동구 궁동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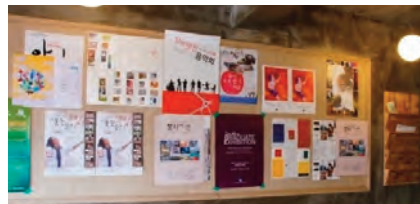
무등갤러리



예술의 거리 변천과 함께해 온 무등갤러리

1991년 11월 21일 동구청의 지원으로 무등예술관 문이 열린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기본 좋게 활짝 열려 있는 출입구를 지나

기다란 복도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안쪽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공간이 두 팔 벌려 안아줄 듯 자리하고 있다. 안락하고 깔끔한 분위기 덕분인지 유난히 젊은 작가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갤러리 또한 젊은 작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작가지원전, 실내 아트경매,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전시, 현대공예전 등 일반전시에서부터 기획전시, 사회공헌적인 전시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T. 062-236-2520 A.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51-25

원갤러리

광주 예술의거리를 30여년 가까이 지켜온 전문 상업화랑이다. 많은 예술거리 화랑들이 현실적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타지로 이전한 반면 원갤러리는 광주화랑의 품격과 명망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일년에 계절별로 기획초대전을 비롯해 마케팅 중심의 전시를 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좋은 미술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에 들러 추천을 받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갤러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도 좋은 작품을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다. 2012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리 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중 하나로 갤러리 서터문에 그려진 김정란 작가의 꽃그림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T. 062-222-6547 A.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51-26

이 외에도 다양한 갤러리들이 예술의 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있으니 구석구석 찾아들어가 보는 것 또한 큰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안요 따뜻한 흙 기운이 가득한 힐링의 집



남도 유일의 도자기 명장 포운 김옥수 선생의 집

명장이 빚어낸 다기도 구경하고 한테 어울려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곳

쓰러져가는 구멍가게의 탈바꿈, 편안하고 은은한 실내 분위기에 전시공간으로 인기 만점인 갤러리

무안에서 32년 동안 도자기를 제작하고 국내 최초로 황금 분청사기 유약을 개발, 특허 등록한 명장의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분청사기들을 볼 수 있다. 현재 아들이 도자기에 취미를 갖고 도자기 제작 기법과 기능을 전수받아 5대째 대를 이어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도자기 가마와 교육공간도 함께 운영하며, 예약을 통해 누구나 도자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안요 갤러리에서는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그릇에 차를 담아 마시는 맛 또한 일품이다. 부인 박난경 여사는 다도교

실을 열어 다수의 차사범들을 배출해오고 있다. 단란한 가족이 운영하는 집, 백년가게가 될 이 곳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자.



T. 062-222-7487 A. 광주 동구 궁동 34-8 B. <http://blog.naver.com/madic5>

무안요와 분청사기

분청사기의 주요도요지

70%가 황토, 영산강과 서해안 해상로를 따라 중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도자기교역의 한축을 담당했던 무안에서 분청사기가 뿌리내려왔다. '땡땡이 다완'이라고도 불리는 분청사기는 경쾌한 소리가 나며, 특히 넓고 평퍼짐한 무안분청은 소박하고 넉넉하다. 무엇보다 서민적이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미 다수의 외국인들이 무안요 공방에서 체험도 하고 작품을 구입해가기도 했다. 한국적인 것을 찾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함께 이 곳에 방문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수려재 한 땀 한 땀, 수려한 자태와 낭만을 그려내는 규방공예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사회 속에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양반집 규수들의 생활공간, 그 규방에서 만들어진 규방공예. 조선 여인들의 창조적인 손재주와 지혜로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운 작품들을 지금의 시점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곳에 주목하자. 프랑스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한국수채화에도 일가견이 있는 주인 우영희씨는 쪽염색은 물론 자연소재를 이용한 염색으로 직접 바느질 재료를 만든다. 이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

하여 감각적인 디자인과 꼼꼼한 바느질 솜씨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규방공예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통유리 너머 고운 색상을 뿜내는 작품들과 함께 바느질에 열중한 그녀의 작업도 함께 볼 수 있다. 보자기에서부터 다양한 소품들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도 전시되었던 연잎 조각보 램프는 2015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식 관광 상품이다. 공예체험과 강의도 열리는 공간으로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손바느질, 소소한 담화가 그림다면 이 곳에서 쉬어 가보자.



T. 062-222-0889 A. 광주 동구 궁동 62-2 B. <http://blog.daum.net/sooryeojae>

광주 아트 샵 광주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진다리봇 명인이 운영하고 있는 샵으로 광주지역 공예품들과 전통보트를 판매하고 있다. 2층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층은 광주공예협동조합 사무실이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광주지역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공예아트상품을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다.



진다리봇

진다리는 광주 백운동의 옛 지명으로, 고 안중선 옹의 할아버지가 진다리에 정착하여 만들면서 유명해져 진다리봇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족제비 꼬리털과 양털을 사용하고 겨울 대나무를 베어 3개월의 건조과정을 거쳐 붓대로 사용한다. 현재 4대째 그 기능이 전승되고 있으며 광주의 특산물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T. 062-222-7487 A. 광주 동구 궁동 34-8 B. <http://blog.naver.com/madic5>



숲 속의 가족공방 오래 묵을수록 깊은 빛을 내는 가족공예



천연소재와 전통기법으로 탄생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족 수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고급스러워진다. 손때 묻은 가공예도구들, 묵직한 가족 냄새, 멋스러움이 가득한 공방이다. 일본공예기법으로 만드는 수제가죽 제품들은 천연소가죽과 천연염색으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빨리,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에 느리지만 오래가고 소장의 가치가 있는 가족 공예품들은 우리 삶에 숨을 돌릴 여유를 생각하게도 한다.

교습생 강의와 100% 수작업 주문제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디자인개발 및 전통 디자인을 형상화한 관광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팔찌 같은 작은 액세서리에서부터 가방, 생활용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자신만의 디자인을 구상해 개성 넘치는 가족공예품을 만들어보자.



T. 062-225-0609 A.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52-4

김여사네 직접 옷 만드는 옷가게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은 어떨까. 기성복보다는 덜 세련되더라도 자식을 위한 정성이 듬뿍 담긴, 그래서 몸에 편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옷일 것이다. 엄마와 딸이 함께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들이 매일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다. 가게 한켠에서는 오늘



도 열심히 김여사님의 재봉질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딸그랑 문소리가 나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반갑게 인사해주시고는 이내 다시 작업에 몰두하신다. 조끼,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 등 먼 원단만을 사용해 만들어 보기에다 편안해보이는 옷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옷 만드는 과정을 어깨 너머로 구경하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무르게 된다. 옷감고르는 센스 또한 뛰어나셔서 진열장 한켠에 비치된 형형색색, 꽃무늬 원단들을 보면 어떤 사랑스러운 옷들이 만들어질지 상상의 꼬리를 물게 만든다. 엄마 손 잡고 나온 예술거리에 나온 날에는 꼭 들려보길 추천한다.



몰랑몰랑 핸드메이드 가게



아기자기한 소품이 한가득, 지나가던 아이들도 가게 앞 유리창에 얼굴을 묻고 진열대의 고양이 인형을 한참 바라본다. 재미난 소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굳어있던 뇌가 가게 이름처럼 몰랑몰랑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작은 공간

이지만 가게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핸드메이드 물건들을 찾아보게 되는 보물상자 같은 곳이다.

사실 이곳은 김여사님의 딸이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가게로 예술의 거리 아트시장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최근 이 곳에 가게를 열게 되었다. 나란히 각각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가게지만, 김여사네와 몰랑몰랑은 안에서 이어진 두 가게 한집이라고나 할까. 엄마의 손재주를 타고나신 덕분인지 미소가 아름다운 사장님이 푹푹딱딱 못만들 건 없는 것 같다. 수제 양초부터 천연비누, 미니어처, 인형 등 손으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즐겁게 만들어내는 능력자이자 디스플레이 감각 또한 남다르다.



들꽃영토 배움과 나눔의 소중한 실천

2005년 서진여고 최래오 선생님과 지인들이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단체, 청소년 성장 공동체를 만들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예술 거리에 마련하였다. 정기적인 후원회원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음 공간, 누구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셀프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이용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이용료를 모금함에 넣는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웃의 정성과 사랑 속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부하길 바란다.



T. 062-652-7970 A. 광주 동구 공동 52-12번지 무등갤러리 2층 H. <http://www.wildf.net>



스톤헨지|Stonehenge 낡은 집의 색다른 변신



예술의 거리 내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던 낡은 집이 문화예술놀이터로 변신했다. 지역 예술가들이 담장과 집 구석구석에 예술적인 요소로 채워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빈집이 다원화 공간 스톤헨지가 되어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버려진 공간을 재생하여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곳은 옛 집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마당 가운데 미니 캠프파이어 장을 만들고 나무 데크로 된 무대도 설치되어 있다. 작가들의 네트워크 장이 펼쳐지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갤러리와 달리 이색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무대 한 켠에는 커다란 하트모양의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 2012년 아트방명록 프로그램 당시 예술가와 시민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물이자 예술품이다.



예술의 거리의 화백 3인을 기리는 아트게시판

천경자 꽃과 영혼의 화가

60,70년대 한국화단을 이끈 대표 작가, 전남 고흥 출신의 천경자 화백은 전남여고를 거쳐 1944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46년 광주여고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로 수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1946년 첫 개인전을 연 이래 수많은 전시는 물론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면서 쓴 해외여행기와 수필, 자서전 등 글로도 유명하다.



초기 그녀는 현실의 삶과 일상에서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 등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외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꿈과 낭만을 실현하려 했다.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을 벗어나 문학적, 설화적인 면을 강조해 여인의 한, 꿈, 고독 등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이후 특히 꽃과 여인을 소재로 환상을 표현하거나 해외 여행에서 느낀 이국적 정취를 통해 원시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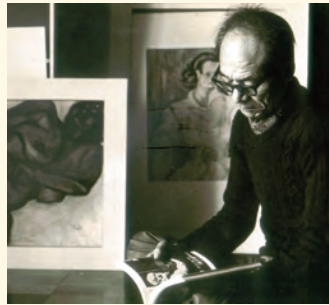


·위치: 예술의 거리 '옛날세상' 상가 앞

벽화 와 공간

배동신 불멸의 화가

한국 근·현대화단의 수채화 1인자로 명명되었던 배동신 화백은 70여년간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며 수채화 외길을 걸어갔다. 1920년 아름다운 예향 광주에서 태어난 후 17세때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일본 가와바다 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동경과 광주 개인전을 합산해 26회의 수채화 개인전으로 입지를 굳혔고 2000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2000년에 수상했다.



세계적인 수채화 작가로서 유화의 밑그림 정도로 인식되던 수채화를 회화의 한 장르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척박한 지방 화단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주로 풍경을 담는 중에도 그는 무등산을 수없이 그려냈다. 또한 파리 화풍에서 영향을 받고 일본 화풍을 통해 조정된 특이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아트 게시판은 배동신의 작품 중 '무등산'에서 이미지를 착안하여 조형물로 재해석한 것이다. 붉은색 빈 공간은 문화·예술 포스터 부착을 위한 디자인 된 부분이다.

·위치 :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기둥

양수아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1920년 고난의 시대 보성에서 태어나 굴곡진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는 해방된 조국의 혼란과 격동의 시기 또한 견뎌냈다. 끝없는 소외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 시대의 지성으로 한국전을 오롯이 겪은 불온한 참여주의자이자, 24회의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운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다.



17세에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였고 기자, 미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파스텔로 그린 추상화전을 가져 호남 화단에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의 피카소라 평가 받으며 비구상의 세계를 연화백이다. 혹자는 그의 작품을 반 고흐보다 역동적이고 황홀한 영혼의 율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특히 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개인의 심적 상황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아트 게시판은 양수아의 작품 중 '자화상'에서 모티브를 따와 이미지화 시켰다. 연필이나 파스텔과는 달리 조형물로 만나보는 자화상을 통해 그의 예술적 열의와 높은 가치를 되새겨보자.



·위치 :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기둥

벽화 와 공간

사랑하는 이와 앉아 사랑에 대해 생각 볼 수 있는

러브벤치



예술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잠시라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트벤치는 거리미관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다 아름답고 즐거운 거리를 그려 보고자 한 것이다. 쿵닥쿵닥 사랑이 싹트는 하트 모양에 LOVE 글자 조형으로 이루어진 벤치는 그 자체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글자의 두 획이 빠져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각각 빠진 부분에 앉았을 때 비로소 그 모양이 완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다. 관객 체험형 문화 포토존 기능이 가미된 곳이다. 벤치를 지나 내려가면 중앙초등학교 벽면에 거대한 타일 모자이크를 볼 수 있다. 과거 많은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고 정치인들의 유세장소로도 유명했던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을 묘사한 듯한 희극적인 벽화와 벽돌담 너머 담쟁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있다.

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지역 아티스트들, 갤러리, 화랑, 상가들이 일반인들과 한데 어우러져 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예술거리의 중심 사거리에 자리한 야외무대는 행사 진행 중심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매해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달라지는 하나 아트경매, 거리미술제, 거리공연 등이 주로 펼쳐진다. 이외에도 거리의 음악가들이 무대를 활용해 주말에는 길거리 음악회가 자유롭게 열리기도 한다. 양쪽 기둥 2013년에 설치한 역사게시판에는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포스터 및 공지문 등을 붙여 홍보할 수 있다.



벽화 와 공간

골목에 매료되게 하는 벽화들



갤러리와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메인 거리를 두고서 사이사이 골목길로 눈을 돌려보자. 사시사철 만발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딱히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고 수년간 각기 다른 사람들의 손길로 색이 바라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삭막하고 차갑기만 한 시멘트 벽들을 고운 색으로 옷입힌 것은 지역 예술가들의 고운 마음들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벽화들을 찾아다녀보는 것도 예술의 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궁동주차장 벽 한 면을 가득 메운 벽화로 거리의 분위기가 화사해졌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모티브로 그린 벽화
끊임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자신의 창의성을 아낌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쏟아내는 이 시대의 예술가의 상을 생각하며 그린 벽화



손, 머리, 가슴으로 일하는 꽃같은 예술가를 생각하며 그린 벽화
끊임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자신의 창의성을 아낌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쏟아내는 이 시대의 예술가의 상을 생각하며 그린 벽화



벽면에 있는 환기구, 작은 창문, 기둥 등을 자연스럽게 살려 재치있는 벽화를 완성시켰다.

벽화 와 공간

‘키스해링을 찾아라’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의 버려진 빈 벽이나 공공장소에 예술의 옷을 입히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3년 광주문화재단에서 직접 진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동안 관심없이 낙후되던 공간들이 벽화와 조형물 등을 통해 재탄생되었는데 예술거리에 그 중 3개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홍원철, Bridge of Art

FRP와 철을 재료로 만든 이 작품은 궁궐러리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제주 많은 예술가를 상징하는 원숭이들이 바나나 모양의 다리를 이어주고 있다. 시민과 예술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예술의 거리의 의미를 재기발랄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호동, 달을 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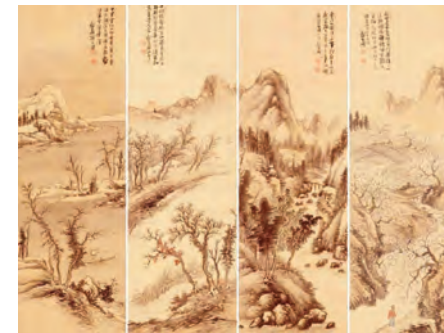
타일과 자연석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그린섬 미술학원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순수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달을 하늘에서 빌려온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인물들의 얼굴은 자연석으로 처리하여 입체적이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담았다.



백중휘, 거룩한 계보

미림화방 옆 골목 벽면 가득 새겨진 의재 허백련 선생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광주 예술의 상징이 되는 선배 예술가의 얼굴을 새기고 싶었다는 작가 마음이 흰 수염 속에 잘 묻어나 있다.



의재 허백련

조선 후기 한국 남종화를 완성했던 허련의 후손으로 한국화의 대가이다. 1938년 광주에 정착한 후 연진회를 발족하고, 전통서화와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세속적인 성공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겸허하고 청빈한 사상, 실천적 계몽가로서 올곧은 삶을 살았다.

상가

Cheese 사진 찍을 땐 다함께 치~즈

치즈 2013년 3월 오픈한 사진관. 아기자기한 규모의 사진관 안에는 늘 사람들이로 북적인다.

이름부터 웃음을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 이 곳은 안에 들어가면 노란벽이 화사하게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무한한 믿음을 심어준다.

자기들만의 컨셉에 따라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증명사진, 여권, 프로필, 돌, 기념사진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느낌 충만한 사진을 찍어 만족도가 높기로 입소문이 난 곳이다. 사진 찍은 후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드립니다’는 사진관 치즈에서 좋은 추억 사진을 만들어보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쉰다.



T. 062-233-1751 A. 광주 동구 대의동 17-2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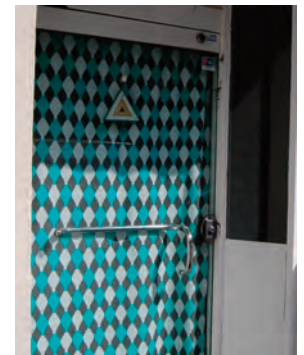
녹;다 우울한 것들은 스르르 녹여버리고 화사함으로 기분 up 할 수 있는



2011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샵으로 젊고 감각적인 여사장님의 센스와 친절함이 돋보이는 곳이다. 하얀 외벽의 작은 가게, 주인의 손길이 닿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곳, 그 안을 들어가면 나도 연예인이 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눈썹정리 무료’라는 문구를 보았다면 망설임 없이 들어가보라. 얼굴형에 맞는 눈썹정리부터 유용한 메이크업 팁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민되는 스타일링 혹은 외모 콤플렉스 등도 스스로 없이 이야기해보자. 누구보다 시원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도 한다. 토탈 스타일링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겠다.

메이크업의 베이스를 가장 중시하는 사장님 손길로 단시간의 화려함이 아닌 장시간 지속될 수 있고 자신의 곁에 맞는 맞춤형 메이크업을 받게 된다. 1:1 메이크업 교육도 진행 중이며, 한 달에 한번 무료 메이크업 이벤트도 하고 있다.



T. 062-222-2330 A. 광주 동구 예술길 17-2 1층 B. http://blog.naver.com/pip_pin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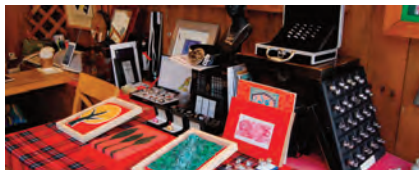
은만들기 나만의 은공예품을 만나고 싶다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은수공 전문점으로 직접 디자인한 은공예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한지를 재료로 하고 장승을 소재로 만든 판화작품도 벽면에 걸려 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문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들을 위해 개발해 낸 아트 상품이다. 한 가지 은펜던트로 팔찌, 목걸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은공예체험이나 수업도 작업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부지런한 작가 덕분에 신상품

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2012년 아트프로젝트 중 예술등달기는 루미나리에 철거 후 저녁이 되면 어둡고 삭막해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개성넘치고 감각적인 예술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술의 거리 내 밤풍경에 감성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 중 하나인 '그래도 희망이다' 등이 은만들기 건물 옥상에서 비추고 있다. 인근 도시 광주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와 예술거리 풍경이 글씨를 메우고 있다.



T. 062-433-4088 A. 광주 동구 대의동 79-2

에스닉 세계 수공예품 전문점



이 가게가 예술의 거리에 자리잡은 지 20여년이 되었다. 늘 다양한 물건이 있어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하지만 제법 오래된 가게에 속한다. 다양한 국적의 토속적인 수공예품을 볼 수 있는데 목각 조각품에서부터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이 3평 남짓한 공간에 뽀뽀이 채워져있

다. 더욱이 이 물건들 중에는 원석 가공에 능한 주인아저씨의 수공예품들도 많다. 인도에서 수입해온 형형색색의 의상과 스카프들, 가방들도 벽면 가득 걸려있다.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액세서리에 무엇을 골라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추천도 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의미, 재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설명해주신다. 저렴한 가격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또한 액세서리에 대한 A/S도 확실히 해준다. 행운을 주는 팔찌, 자신의 탄생석에 얹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을 찾아가보자.



T. 062-227-9938 A. 광주 동구 대의동 79-2번지

상가

신신 예술의 집 나이 많은 물건들의 집합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옛 생활용품부터 오래된 악기, 민속 골동품 등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특히 100년을 훌쩍 넘기며 살아온 고가구들, 선장이 피웠다는 나무 담배 파이프, 할아버지가 가져왔다는 쫓대와 호롱불 등 흥미로운 것들 천지이다. 이 곳의 물건들은 희소가치와 보존 정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매겨지고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물건들까지 있어 작은 박물관 같은 느낌도 들어 요즘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인아저씨가 들려주는 물건의 여행담도 듣고 아날로그적 감성도 충전시켜보자.



T. 062-222-1936 A. 광주 동구 궁동 38-8

전주 필방 질 좋은 한지와 소천붓을 만날 수 있는

1982년 2월 예술의 거리에서 한지 전문점을 시작한 백태석씨는 화선지 공장을 운영하다 수제 한지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값싼 중국산 한지에 밀려 더 이상 수제 한지를 만들지 않고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오랜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하며 평생 예술의 거리를 지키며 살 것이라 주인은 말한다. 700여 종류의 한지, 전주 합죽선, 담양부채, 소천붓 등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예가들 사이에서는 글씨가 잘 써지기로 소문난 소천붓은 여수 전통삼대 명필자인 소천 채태원씨가 한지를 사러 전주필방에 들른 것을 계기로 판매하게 되었다.



T. 062-227-4037 A. 광주 동구 궁동 38-12

상가

청산 현방

건강에 좋은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옛 생활용품부터 오래된 악기, 민속 골동품 등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특히 100년을 훌쩍 넘기며 살아온 고가구들, 선장이 피웠다는 나무 담배 파이프, 할아버지가 가져왔다는 촛대와 호롱불 등 흥미로운 것들 천지이다. 이 곳의 물건들은 희소가치와 보존 정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매겨지고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물건들까지 있어 작은 박물관 같은 느낌도 들어 요즘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인아저씨가 들려주는 물건의 여행담도 듣고 아날로그적 감성도 충전시켜보자.



T. 062-224-0236 A. 광주 동구 궁동 40

화방들

예술인들을 위해 좋은 재료를 공급해주는



예술 거리에서 처음으로 생긴 명미화방, 캔버스 제작기술은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였다. 이 곳은 단순 전문화구를 파는 화방 그 이상이었는데, 이유는 화가들이 화구 구입을 위해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밤늦도록 술좌석이 화방의 불을 밝히게 했기 때문이다. 광주 모든 화방의 체계와 화구 제작 기술은 명미에서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명미화방에서 기술을 익힌 기술자가 미림화방을 열었고 예술의 거리에 두 번째로 화방이 생겼다. 2013년에는 화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림액자도 열어 그림의 연장선에서 작품의 퀄리티를 극대화해줄 다양한 액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외에도 예림화방, 무등화방 등이 있다.

미림화방 T. 062-222-9761 A. 광주 동구 궁동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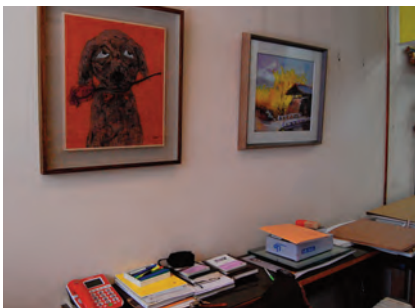
음식

미팜 깔끔한 액자가게



다양한 액자가게가 예술의 거리에 있지만 늘 깨끗한 가게 안을 유지하시며 깔끔한 액자를 만드시는 길로 유명한 미팜. 언젠가도 훈훈한 착한 미소를 지닌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신다. 누구든 방문하면 바쁜 일손을 멈추고 차를 건네는 여유를 지니신 분으로, 서

정적인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액자를 만드신다. 서양화 표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계시며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예술의 거리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는다는 가게로 야간의 액자 주문을 하고 싶다면 미팜으로 문의하자.



T. 062-228-8500

A. 광주 동구 공동 61-2

풀하우스 동화나라에 온 듯한 분위기의 카페와 핸드메이드 공방

매일 가게 앞에는 작은 좌판이 펼쳐져 있다. 주기적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로 핸드폰 고리, 아기자기한 헤어핀, 수제팔찌, 스카프 등이 주를 이룬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칠판에 맛있는 음료의 이름들과 초크아트로 그려진 그림들이 가득하다. 손으로 세기 힘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카운터와 카페 벽면, 테이블 주변에 가득한데, 이 모든 것들이 카페 주인의 작품이다. 테이블 사이에 처진 나무 파티션에는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이 붙여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었을 담소와 추억을 교감할 수 있다. 카페라떼가 다른 커피숍에 비해 달지 않고 부드러워 인기가 높고, 여름철에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 소박한 도자기 그릇에 나오는 팔빙수를 꼭 먹어보자. 부드러운 얼음과 담백한 팔이 어우러져 더위를 이겨낼 힘이 생기게 해준다. 카페 맞은편으로는 핸드메이드 공방이 있는데 수강생들과 수공예품을 만들고 가르치는 곳이다. 인형만들기, 리본공예, 초크아트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다.



T. 062-223-8837

A. 광주 동구 공동 52-5

음식

신신분식 예술거리의 유일한 분식집, 숨은 맛집

테이블 6개, 아주 작은 규모의 분식집 앞. 점심시간에 가보면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인근 미술학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인들 또한 가볍게 점심을 먹고자 찾는다. 튀김, 떡볶이가 특히 맛있는데 바삭하게 튀긴 김말이 튀김과 오징어 튀김이 인기가 많다. 특히 간장에 고추와 양파를 듬뿍 넣고 숙성시킨 소스는 튀김과 궁합이 잘 맞아 감칠맛 나는 튀김을 맛 볼 수 있게 해준다. 떡볶이는 주문할 때 바로바로 작은 냄비에 끓여서 만들어주며, 이제는 광주의 명물이 된 상추튀김도 주문가능하다. 분식 외에 든든한 식사로 닭장떡국, 백반, 동지죽 등도 판매하고 있다.



T. 062-222-9622 A. 광주 동구 궁동 58-12

기차집 엄마가 끓여주는 생선조림의 맛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하고 질 좋은 생선과 채소들을 구해와 손님상에 푸짐하게 올라가는 갈치찜과 병어찜. 그 맛이 비리거나 화학조미료에 때문에 질리는 맛이 아니라서 인근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다. 생선과 잘 어울려 알맞게 조리된 사르르 무와 넉넉하게 깔린 고사리가 더욱 맛과 영양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준다. 제철에 맞는 밀반찬들이나 간간히 내놓는 낙지젓갈의 맛 또한 일품이어서 밥 두 공기는 푹딱 해치우게 만든다. 조림과 구이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갈치정식 또한 인기가 높고, 제대로 묵은 김치의 시원함이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T. 062-226-8920 A. 광주 동구 궁동 38-6

음식

토방 광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정식집

광주 오미 중 하나인 한정식. 타지 사람들이 광주에 오면 먹어보고 싶어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2002년에 문을 연 토방은 부담 없는 가격에 깔끔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밑반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은 음식 비법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물과 소금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 했다. 17가지이상의 반찬들은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싱싱한 재료로 만든다. 이 외에도 녹차굴비 정식을 또한 여름철 별미로 꼽히고 있다. 찬 녹차물에 밥을 말아 바닷바람에 잘 말린 굴비를 올려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 다양한 남도의 음식을 한 끼의 식사에서 고루 맛보고 싶다면 토방으로 가보자.



T. 062-226-9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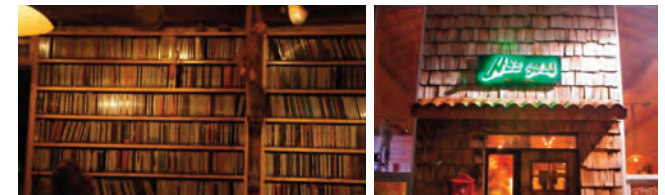
사운드 오브 뮤직 인간 냄새 풀풀 들리는 음악카페

나무집에서 울리는 따뜻한 소리의 품격, 아날로그적 감성 충전소

도심 속에서 숲내음을 느낄 수 있는 나무집에서는 술과 음악과 사람들이 감성 충전한 밤을 보낼 수 있다. 보다 좋은 음악 소리를 손

님들에게 들려주고픈 사장님의 마음이 인테리어에서부터 고급 스피커,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황색 불빛에까지 녹아들어 있다. 천장에 뚫린 창문이 있어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더욱 운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 메뉴는 와인, 칵테일, 맥주 등으로 이 집의 메뉴판은 LP판에 적혀있다. LP판으로 듣는 올드 팝송, 아날로그 음악들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오는 손님들도 많다. 또한 바에 있는 사장님께 신청곡을 적어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T. 062-222-2231 八.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14-2

대인시장

미즈프라자

한화생명 광주사옥

한미쇼핑사거리

순대국밥 골목

티하우스(77P)
이화점(56P)

다다(51P)

건이네 식육식당(71P)

대인갤러리(52P)

물가의 나무(76P)

장터국수(74)

함평 닭집(69P)

명킨앤명집(72P)

해 뜨는 집(70P)

한평 갤러리(54P)

항꾸네(5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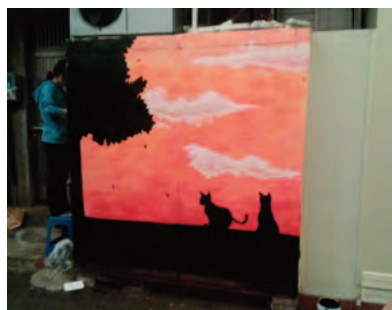
칠우불고기(73P)

광주인권운동센터/인권영화제(58P)

미테 우그로 자자(60P)

- 문화예술공간
- 상가
- 식당

대림상가 길 대인 시장의 시작



옛날 나무들을 팔던 나무정 거리에
서부터 예전 철도길을 따라 길게 뻗어
대인시장으로 이어지는 대림상가길.
70-80년대를 연상시키는 가게들의 재
미난 이름을 찾아 골목을 거닐어 보자.
길 어귀 위로는 소풍유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완고와 성덕고 학생들이
만든 벽화와 종이파켓들이 걸려있다.
종이파켓에는 아이들이 말투가 담긴
재밌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과거의 모
습이 그려진 길 풍경과 현재를 살아가
는 사람들의 말이 뒤섞여 색다른 모습
을 그려내고 있다.



대인예술 야시장



2008년 비엔날레 특별전(복덕방 프로젝트)를 위해 작가들이 모금하여 '매미시장'을 연 것이 지금 야시장의 단초가 되었다.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2013년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가 되었다. 작가들의 아트 상품부터 수많은 공예품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흥겨운 길바닥 공연과 시장 주전부리들로 만족시키고 있는 행사이다. 보통 본전식품 삼거리에서 한 평 갤러리 앞 골목에 좌판이 펼쳐진다.





만물예술마차 볼거리 가득한



몇 해 전부터 대인시장에는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드는 야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수백개의 등에 불이 밝혀지고 꽃과 캐릭터들로 예쁘게 단장한 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다. 일반 시민들도 신청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먹거리, 예술품, 아이디어 상품, 중고물품 등 다양하고 신기한 물건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야시장이 열릴 때면 평소 마차가 세워진 공간에서 퍼포먼스나 미니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갤러리 다다



2009년 <민수네 쌀>이라는 기존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미나리 상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카페 및 아카이브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시장 내 상주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메이션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인시장 내 상주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장 내 아트숍이기도 하다. 작품의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미술작품 유통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자 한다. 모든 기획과 운영은 대인시장작가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예술가 자생공간이다.



갤러리 대인 복합문화공간



2012년 옛 철물점 자리에 연 이 갤러리는 미술전시와 함께 아트상품을 판매하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활동 공간이 될 복합문화시설이다. 아담한 공간에 맞게 작은 평면작품이나 입체소품, 도자 아트상품 등을 전시 판매하며, 커피와 차, 간편식 샌드위치 등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숲을 운영해 시장 내 누구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연다. 미술작품과 음악이 어우러져 국내외 관람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전시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예술 공장 상상력을 빚어내는



2009년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열리는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쓰이다가 2012년부터 공동작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대형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작가들의 작업 모습을 살짝 구경할 수 있다. 기본적인 연장, 전기 공구 등이 구비되어 있고 작업장 오픈 시간은 작업자들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작업공간을 넘어 상인들에게 공구를 대여해주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에겐 예술가의 아틀리에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다.



한 평 갤러리

단 한 평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한 창작에너지

작가 한 명에게 한 평의 공간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획하고 작품을 설치하며 각자의 개성이 담긴 공간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분양하는 곳이다. 지역 내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왔으며 관람객들에게는 작가들의 작품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고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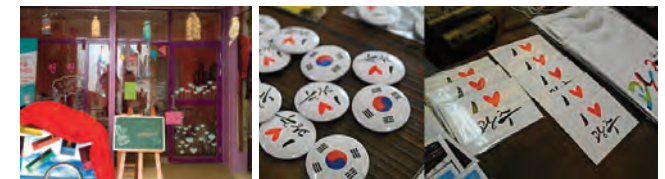
시장만의 특색과 자율성이 발휘되는 갤러리를 만들고자 2012년에 만들었다. 기획전시가 아닌 '분양전시'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한 평씩 전시공간을 할애 받은 작가들은 기획부터 전시까지 마음껏 꾸밀 수 있다. 한 평의 작은 갤러리가 모두 여섯 칸, 시민들을 향해 활짝 오픈된 개방형 대안갤러리다.



문화관광시장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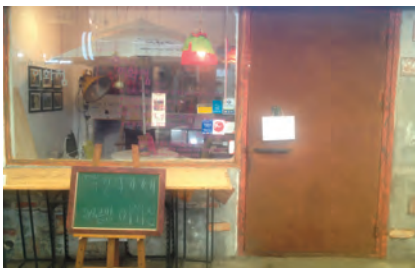


천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쉴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광주 기념품 아이러브광주 배지, 티셔츠, 엽서 등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인시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면서 광주를 알리고 시장에 관한 자료도 비치해 놓는 공간이다. 작은 카페 앞에서는 음악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내부 벽면에는 상인들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봄부터는 시장 내 문화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웰컴센터 대인스토리가 문을 연다.



이화점 다원식문화공간

사진작가이자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영숙 작가가 2011년 대인시장에 예술과 음식이 접목된 '이화점'을 열어 지역작가들의 담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우리전통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달작 지근한 막걸리와 함께 음식을 즐기다보면 흥이 절로 나게 될 것이다. 각종 잔치 음식과 명절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다. 작가는 대인시장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창작활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Λ. 광주 동구 대인동 327-9



항꾸네 대인예술시장 내 작은 극장



2011년 문화예술 공방사업의 일환으로 놀이패 신명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항꾸네는 전라도 사투리로 '함께'라는 의미이다. 관객과 예술가 혹은 시장과 예술이 다함께 어우러져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해가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소소한 공연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세미나나 워크숍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놀이패 신명
마당극 창작 및 공연활동을 활발하게 벌임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통해 문화공동체를 꿈꾸는 전문예술단체이다. '전라도 마당극'의 전형을 확보하며 한국 마당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전문 마당극 연희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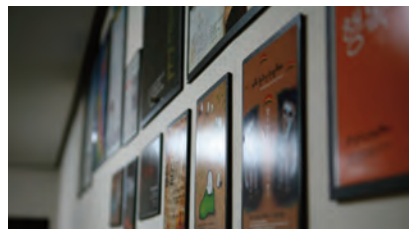
광주인권운동센터/인권영화제



우리도 모르게 유린당한 인권 현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상을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대한 자본의 이익에 따른 상업영화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인권이 존중받길 바라며 독립영상을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축제의 장을 기획해왔다.

지역 내 영상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대안영상발굴에 힘쓰고 있다. 1996년부터 이어온 광주지역 대표 영화제로 자리

매김해왔으며, 소규모 영화제 상영, 인권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무실 안쪽에는 인권에 관한 서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현장의 인권활동가들이 상주해 있으니 우리 사회 인권의 현실에 듣는 좋은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실 대인시장 속 예술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작업공간들이 모여 있는 시장

개별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작업실들이며, 야시장이나 시장행사 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작가들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인시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예술가들과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대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작업 공간 대부분 그 용도와 주인이 바뀌면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작가들 별로 작업시간이 다르고 사적인 공간이기에 작업실 내부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외부에 작가들 개성이 드러난 조형물들이나 명패들을 볼 수 있다.



미테 우그로 자자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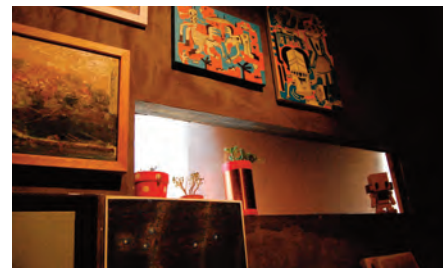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는 2009년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뜻이 모여 탄생한 비영리 대안공간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전시, 세미나, 워크숍, 국제교류 등을 진행한다.

제도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동기회가 적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실험적 장르 개척과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자유롭고 발전적인 비평문화 정착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초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참신한 기획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네팔·대만 등 아시아 무대를 중심으로 대안공간 및 작가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는 자생적이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실험과 표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가고 있다.



미테우그로는 ‘밑에’, ‘위에’라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표기한 것이다. ‘미테’는 지하 1층에 자리한 전시공간, ‘우그로’는 1층에 위치한 카페, ‘자자’는 광주를 방문하는 예술가들과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이다. 자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미테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우그로 카페에는 예술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입주 작가들의 아지트로 커피한잔 마시면서 예술가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





하늘과 소나무



2009년 이창범 작가가 그린 소나무 벽화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작업실을 얻을 수 있어 하나 둘 씩 작가들이 대인시장으로 모여들었지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시장 안의 아케이드가 있어 하늘과 햇빛을 보기가 어렵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예술혼을 불

사르는 동료들을 위해 작가는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고픈 마음을 담아 시장 골목 벽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소나무가 있는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시장 안의 대숲



순대국밥골목 끝 내장국밥이 맛있는 나주식당 앞, 시장통으로 들어설라 치면 커다란 대나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바람부는 날이면 퐁퐁르르 퐁퐁르르 소리가 시장에 고요히 울린다. 윤남웅 작가가 만든 거대한 대나무 풍경이 바람과 노는 소리이다. ‘대

숲바람 시장에 들다’라는 문구로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장의 흥정소리와 대나무 풍경소리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대인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다.

벽화와 공간

전설이 있는 무화골

한 무화가 나무가 시장 골목 안에 있었다. 해마다 탐스러운 무화과를 작가들에게 주었던 나무가 어느 해부터인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다. 걱정스런 마음으로 알아보니 무화가의 뿌리가 너무 커져서 주변 건물들의 지반을 흔들고 있기에 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작가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화과나무를 베 뒤, 이를 기리고자 이기성 작가가 무화과 나무를 형상화한 설치작품을 만들었다. 또 베고 난 무화과나무로는 양 옆에 작은 벤치를 만들어 두었다. 그 후 이 곳을 무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골목에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작업실 입구 예쁜 간판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맛있는 산수화

음식 산수화로 유명한 하루K(또는 하루케이)(김형진)의 작품이다. 이 작가는 동양회화의 철학과 전통 재료를 사용하면서 서양회화의 기법을 차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음식인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한 폭의 산수화가 담겨있다. 앞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익숙한 사물들을 동양화 전통과 결부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형상화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작가이다. 대인 시장에 그려진 벽화는 작은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거대한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벽화 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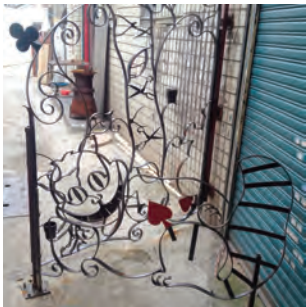
전현숙, 꽃들이 춤을 추어라



대인시장 원앙페백 옆 골목에 두 남녀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벽화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페백가게 옆이 후미지고 어두운 것이 오가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작가는 낡은 벽을 하얗게 정돈하고 자신만의 화풍이 담긴 부부의 초상을 그려넣었다.

이웃을 향한 작가의 애정 어린 관심이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한다. 2013년 거리미관조성 공모사업 '키스해링을 찾아라' 중 한 작품이다.

최양선, 이상한 문



골목 어귀에 설치된 이 문에는 고양이와 카드에 들어있는 클로버나 하트 모양이 뒤섞여 있다. 유독 취객들의 쓰레기 투기와 노상방뇨로 더럽혀지는 이 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치되었다. 특히 철문에 나타난 가위 모양은 골목 벽에 실례를 범하는 취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고양이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밥을 달라는 듯한

통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골목 안쪽 작가의 작업실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생각하며 만든 것이라 한다. 2013년 거리미관조성 공모사업 '키스해링을 찾아라' 중 한 작품이다.

활력을 나눠주는 과일 리어카

시장에는 싱싱하고 질 좋은 과일과 채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들을 오래된 리어카에 싣고 매일 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할머니가 계신다. 518 당시 시민군을 위한 주먹밥을 싸는데 동참했던 하문순 씨이다. 시끌벅적 시장통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할머니는 과일 파는 소리는 힘이 넘친다.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은 손님들과 상인들에게 활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움직이는 작은 도서관 책수레

한시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상인들의 정서와 지식함양을 위해 특별 제작된 책수레.

시장 곳곳을 누비며 100여권의 책이 상인들에게 제공되어 진다. 과일을 팔던 할머니가 손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보고 계시는 동화책에서부터 아저씨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읽은 역사소설까지 다양한 책이 구비되어 있다. 이 책수레는 대인시장 거주 작가들이 만들어준 것으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 모양을 하고 있다. 대인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든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벽화 와 공간

시장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표시등



귀여운 동물 모양의 대형 간판들이 시장의 밤을 환하게 비춰준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천장을 올려다보자. 돼지, 복어, 고양이, 배추 모양의 등은 시장에 많이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 제작시 이 등들에는 주변 약도를 그려놓아 관광객들이 자신들

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013년 낙후된 등을 보수하면서 약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길모르는 여행객들에게는 방향을 표시해주고 있다. 사회성 짙은 전시에 많이 참여하고 대인시장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한 이기성 작가의 작품이다.

슈퍼주니어 간판



한국의 인기그룹 슈퍼주니어가 우리나라 명소들을 찾아다녀온 후 쓴 여행일기들을 모은 책이 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된다, 대인예술시장탐험’이라는 주제로 신동과 은혁의 대인시장 관람기가 적혀 있는데 이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던 그들이 대인시장에 흔적을 남기고 갔다. 늦은 밤 예술공장 앞에서 그들이 만든 것은 바로 Daein market 이라 적

힌 간판이다. 독특한 간판들이 많은 대인시장에 걸맞게 눈에 잘 띄 수 있는 간판을 만들 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신동과 은혁의 사인은 하얀색으로 덧칠해 가려졌지만 슈퍼주니어와 팬클럽 이름은 오른쪽 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래피티로 만나는 자랑스런 운동선수들

2008년 광주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 구헌주의 그래피티 작품이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주인공 장미란 선수가 빈 점포의 셔터를 힘차게 들어올리는 모습 재미있게 연출했다. 또 공터 벽면에는 광주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역사 상 최고의 전 해 태타이거즈 투수이자 현 야구감독 선동열이 멋지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그렸다. 구헌주 작가는 사회참여적인 예술과 인디문화에 대한 답론을 그래피티로 표현하는 부산지역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3개국 4작가의 라이브 페인팅

대인시장 제2주차장 벽 선동열 벽화 그림 옆으로 이색적인 그래피티 작품이 탄생했다. 2013년 9월 야시장이 열리는 날, 3개국의 작가들이 모여 장작 6시간 동안에 걸쳐 완성한 라이브 페인팅의 결과물이다. 광주, 서울, 태국, 브라질 온 작가 4명은 사슴과 토끼 등 각각 자신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 넣어 대인시장 안에 예술가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놓았다. 이날 야시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흥겨운 음악과 락가 하나로 낙후된 벽이 변신해가는 그래피티 예술의 진수를 볼 수 있었다.



참여작가 : GOLD ONE(광주), SIX COIN(서울), ALEX FACE(태국), DANILO OMWISYE(브라질)

음식

순대국밥 골목 시장의 푸집한 인심 한 그릇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골목, 저마다 국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분주하다. 만원이면 접시 한 가득 담긴 돼지머리 고기, 새끼보, 순대, 막창, 곱창을 먹을 수 있다. 매운 고추, 양파, 새우젓, 김치가 기본 반찬으로 나오며 오천 원 짜리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면 고기는 덤으로 준다. 무엇이든 원 없이 퍼주는 국밥집에서 술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뜨끈한 국물에 해장이 되니 취하질 않는다는 애주가의 말마따나 언제나 순대국밥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함평 닭집 30년 넘게 당당히 시장을 지켜온

인상 좋은 할머니의 그림이 가게 앞 냉장고 벽에 딱 하니 걸려있는 가게. 이제는 생닭과 오리만을 팔고 있지만 대인시장에 사람들이 많았을 적에는 깨끗한 기름으로 튀긴 정직한 통닭으로 대박을 쳤던 잘나가는 가게였다. 이 할머니 그림은 마지막 영화감독이로도 잘 알려진 박태규 작가가 2008년에 그린 것으로 대인시장 안에서 자신의 일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 아름답게 웃고 계신다.



박태규 작가

1965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1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걸개그림, 깃발, 열사도 등의 광주오월 선전미술 제작과 민중연대 지원 사업 등 참여미술과 리얼리즘 회화에 전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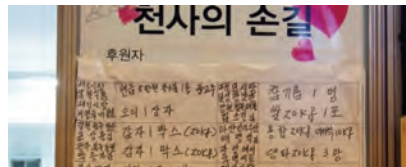
음식

해 뜨는 식당 시장의 푸짐한 인심 한 그릇



김선자 할머니는 오래전 사업 실패 후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이 들어 천원 식당을 만들었다. 식당 이름처럼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밝은 해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픈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다. 몇 해 전 할머니의 건강 악화 후 대인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

고 있는 허영숙씨가 뒤를 이어 운영 중이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매일 같이 천원식당을 찾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고 웃음이 가득하다. 가게 앞에는 다양한 곳에서 후원해 준 재료들이 붙어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T. 062-227-7073 A. 광주 동구 대인동 309-14번지

건이네 식육식당 돼지고기 전문



윤남웅 작가가 그린 형형색색의 토실 토실한 돼지들이 그려진 간판이 달린 곳, 맛좋은 돼지고기 가게로 유명한 광주 맛집이다. 방목하여 키운 국내산 고기만 사용하는 곳이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고기질에 한결 같이 감

탄하곤 한다. 점심에는 애호박찌개나 김치찌개로 든든하게 배 속을 채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곳 김치찌개는 싱싱한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넣고 시원하게 익은 김치와 큼직한 두부가 보글보글 끓어 나오는데 짜지 않고 담백하다. 저녁에는 주류와 함께 노릇노릇한 돼지고기 구이를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랠 수 있다.



T. 062-227-0047 A. 광주 동구 대인동 327-12

음식

덩킨앤명집 정말 맛있는 치킨

남녀노소 불문하고 치킨만큼 인기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브랜드 치킨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맛을 자랑하는 가게이다. 늦은 시각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잦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야식은 치킨, 그 중에서도 덩킨앤명집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바삭바삭한 식감에 양도 푸짐하고 서비스도 좋아 자꾸 사먹게 된다. 매운치킨과 닭똥집도 이 집의 인기 메뉴이다.



T. 062-233-9982 A. 광주 동구 대인동 327-14

철우 불고기 대패 삼겹살으로 대박난

툰밥처럼 생긴 대패 삼겹살, 시중 마트에서 파는 대패삼겹살보다 살짝 더 두꺼운 고기를 마늘과 함께 구워 토하젓으로 만든 양념을 찍고 야채에 싸 먹으면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간다. 고기를 먹은 후에는 무채, 콩나물, 계란 등을 넣고 불판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이 정석. 광주 곳곳에 체인점이 생기고 있지만 뽕이뽕이 해도 대인시장 내 본점에서 먹는 고기 맛이 최고라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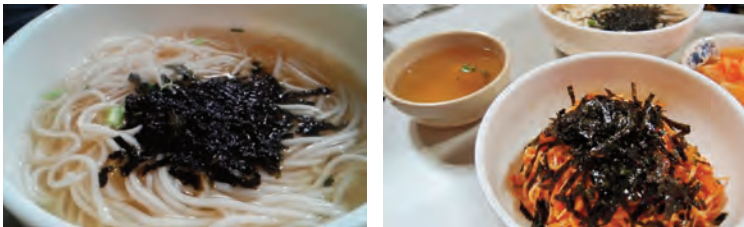


T. 062-227-1011 A. 광주 동구 대인동 312-12

상가

장터국수 후루룩 ~~

대인시장에서는 천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국수도 그 중 하나이다. 천원의 행복이라며 국수나 한 그릇 하고 가라는 POP들이 가게 벽에 가득 붙어있다. 주인은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착한가격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게를 시작했다고 한다. 적당하게 삶아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 뜨끈한 멸치 육수에 아삭아삭한 깍두기를 얹어 먹으면 속이 든든해진다. 5년 전 문을 열었던 때 가격 그대로 비빔국수, 파전, 막걸리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T. 062-225-5085 A. 광주 동구 대인동 310-14

장강 나눔을 실천하는



장독대를 칭하는 전라도 사투리로 가정, 직장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판매하는 곳이다. 처음 노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장 정비 후 작은 가게를 마련했고 월세를 제외한 모든 판매 금액은 다문화가족이나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가게 유리벽에는 아저씨가 손수 적어 놓으신 기부 활동 상황이 붙어 있다. 또한 방명록을 비치해 두고 물건을 기증하거나 방문한 이들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셨다. 가게 안 많은 골동품에도 아저씨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긴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추억의 물건도 구경하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게 되는 곳이다.



T. 062-222-1356 / 222-5085

상가

물가의 나무 헌 옷 주변 새 옷 되는 리폼가게

밍크, 무스탕, 가죽 등 오래된거나 유행이 지나 옷장 속에 넣어둔 옷들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리폼해주는 가게이다. 맞춤의류제작이나 단체복 제작도 하며, 의류제작 혹은 리폼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모피나 가죽의류 관리방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리폼 의류 제작 후 수선서비스도 확실히 해줘 지역 리폼가게로는 신뢰도가 높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요즘 버려질 물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T. 062-222-3447 A.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07-44 H. <http://blog.daum.net/oflowing>

티하우스 아담하고 예쁜 카페

20여 가지 향과 맛의 홍차를 즐길 수 홍차 전문 카페로 커피와 허브차, 각테일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선물용 고급홍차세트와 수제 니트 팔찌도 판매 중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향긋한 홍차향기와 함께 유명 만화책으로 채워진 책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진열장 한 켠에는 고급 매니큐어가 놓여있는데 천원에 셀프 네일 폴리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안내책자와 지도도 비치되어 있어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



T. 062-226-6567

A. 광주 동구 대인동 327-9



은누리 금속공방 반짝반짝 빛나는

식상한 반지 대신에 손수 만든 반지로 프러포즈를 하거나 커플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낡은 시장 건물을 셀프로 리모델링해 만든 공방에서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1:1로 지도해 누구든 쉽게 세상의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반지만들기 체험 뿐만 아니라 은공예, 칠보공예, 결혼예물 등도 주문제작하고 있으며, 은공예 교육도 하고 있다. 커플들의 데이트나 친구들 간의 이색체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블로그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T. 010-2653-0201 A. 광주 동구 제봉로 184번지 길 5-9

문화가 흐르는 예술의 거리, 예술이 넘치는 대인시장
2013 아시아문화대축제 할상화거점프로그램운영

무들마루 가이드 북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일 2014. 2. 28.
발행처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총괄팀장 남상철
사업담당 서환희
프로그램매니저 위정선
사진·글 김유진
디자인·인쇄 자라는 나무(062-675-8229)
도움을 주신 분들 신호윤(2013무들마루 총감독), 박상현(2013무들마루 운영감독)

비매품